

II-1. 국내 만성 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양상 평가

연구책임자	연구실무자	분석지원
최남경	김미숙	신서희 주임연구원
이화여자대학교	서울대병원	건강보험심사평가원

※ '2018년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'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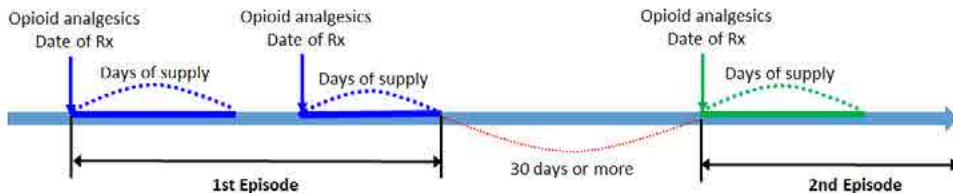
1. 분석 배경

- 만성통증은 질환이나 손상의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,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며 불면증, 우울증 등이 동반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
-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,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
 - ▶ 만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개시 이후 장기간 처방받는 환자의 규모나 장기간 사용에 관련된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함
-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90일 이상의 진통제 처방을 요하는 만성 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 현황을 파악하고, 이들 중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기초특성 및 처방패턴을 파악하고자 함



2. 분석 방법과 내용

- 자료원: 2015년 ~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
- 대상: 통증 관련 주진단 또는 부진단으로 NSAIDs, 아세트아미노펜, 마약성 진통제 등의 진통제를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를 만성통증 환자로 정의하며, 만성통증 발생 이후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처방받기 시작한 20세 이상 환자
 - ▶ 연구기간 동안 암(ICD-10, C00-D48)으로 진단받은 환자 제외
 - ▶ 연구대상 마약성 진통제 (R05DA, N02AA)는 성분명과 제형을 통해 6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경구용 모르핀 동등용량으로 환산하여 일일 처방용량을 비교하였음
- 분석방법: 만성 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환자의 특성 및 지역별, 월별 처방양상을 확인하고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의 특성(만성통증 발생으로 첫 처방까지 기간, 처방용량, 처방기간, 처방받은 약물의 종류 등)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한 환자과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함



[그림 1]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피소드의 정의

3. 분석 결과

- 만성통증 발생 이후 2016년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던 환자는 69,898명이었으며,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약성 진통제 추적관찰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피소드를 확인한 결과 8.6%인 5,984명이 12개월 이상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▶ 성별로는 남성에서, 연령군별로는 70세 이상인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
 - ▶ 마약성 진통제 장기간 사용 환자 중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나 동반질환지수가 높은 환자 비중이 높은 편임

[표 1] 연구대상자 기초특성

	마약성진통제 1년 이하 (n=63,914)	마약성 진통제 1년 이상 (n=5,984)	p-value
성별, n (%)			
남성	25922 (40.6)	2624 (43.9)	<.0001
여성	37992 (59.4)	3360 (56.2)	
연령군, n (%)			
20-29	1597 (2.5)	93 (1.6)	<.0001
30-39	3041 (4.8)	239 (4.0)	
40-49	6486 (10.2)	553 (9.2)	
50-59	13436 (21.0)	1156 (19.3)	
60-69	16474 (25.8)	1444 (24.1)	
70-79	14939 (23.4)	1518 (25.4)	
80-	7941 (12.4)	981 (16.4)	
보험종별, n (%)			
건강보험	58350 (91.3)	4967 (83.0)	<.0001
의료보호	5311 (8.3)	966 (16.1)	
보훈	253 (0.4)	51 (0.9)	
Charlson comorbidity index, n (%)			
0	24810 (38.8)	2071 (34.6)	<.0001
1-2	27439 (42.9)	2523 (42.2)	
3-	11665 (18.3)	1390 (23.2)	
통증 원인 분류, n (%)			
관절염	17446 (27.3)	1774 (29.7)	<.0001
등 통증	25074 (39.2)	2495 (41.7)	0.0002
활액막염	1503 (2.4)	73 (1.2)	<.0001
두통, 편두통	565 (0.9)	72 (1.2)	0.01
신경병성 통증	1639 (2.6)	251 (4.2)	<.0001
만성 책장염	12 (0.02)	2 (0.03)	0.34
기타	22667 (35.5)	1887 (31.5)	<.00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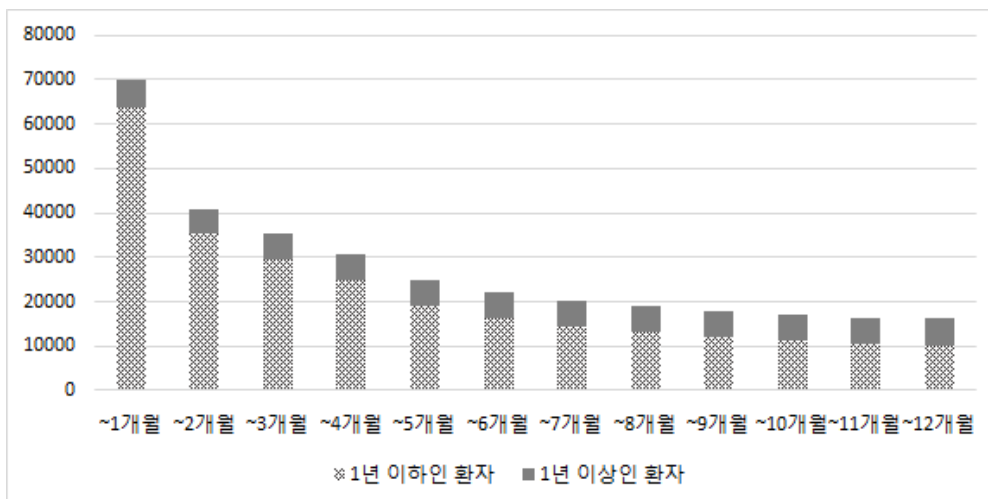


- 마약성 진통제를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첫 마약성 진통제 처방 패턴을 비교하였음
 - ▶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비교적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덜한 트라마돌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시점에서 지속형 처방제를 처방받는 환자도 10%에 가깝게 나타남
 - ▶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들에서 트라마돌을 처방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
 - ▶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환자 중에서 장기간 처방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, 장기간 처방 환자가 만성통증 발생 이후 초기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
[표 2]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의 특성과 장기간 사용 여부

	마약성 진통제 1년 이하 (n=63,914)	마약성 진통제 1년 이상 (n=5,984)	p-value
마약성 진통제 분류, n (%)			
long-acting opioids	6112 (9.6)	255 (4.3)	<.0001
other Schedule II short-acting	4 (0.0)	1 (0.0)	0.36
oxycodone short-acting	801 (1.3)	33 (0.6)	<.0001
hydrocodone short-acting	123 (0.2)	6 (0.1)	0.11
Schedule III-IV and nalbuphine	3361 (5.3)	149 (2.5)	<.0001
tramadol	56940 (89.1)	5716 (95.5)	<.0001
의료기관종별, n (%)			
의원	26371 (41.3)	2301 (38.5)	<.0001
병원	15203 (23.8)	996 (16.6)	
종합병원	22340 (35.0)	2687 (44.9)	
만성통증 발생 이후 첫 마약성 진통제 처방까지의 기간			
mean ± SD	73.4 ± 92.7	57.9 ± 85.3	<.0001
median (Q1, Q3)	30 (1, 116)	14 (0, 85)	
처방기간			
mean ± SD	13.5 ± 18.2	22.6 ± 24.8	<.0001
median (Q1, Q3)	7 (3, 14)	14 (7, 30)	
일일처방용량 (모르핀 등등환산)			
mean ± SD	12.5 ± 29.2	9.2 ± 20.1	0.99
median (Q1, Q3)	7.5 (3.75, 11.25)	5.6 (3.75, 7.67)	

-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 이후 12개월 간 월별 처방환자수를 파악한 결과 일회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로 인해 첫 1개월 이후 급격히 처방 환자수가 감소하였고, 간헐적으로 처방을 받는 환자도 상당히 있음



4. 결론

- 상당수의 만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마약성 진통제에서 약한 진통제로 이어지는 등 비교적 적절히 처방되고 있었음
-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장기간 복용에 대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